

日本 大學의 教養教育

金 道 洙

(檀國大 教授)

I.

「데칸쇼」라는 노래는 大戦時의 日本의 大學社會에서 널리 애창되던 노래이다. 「데칸쇼」란 西洋近代史에 나타난 哲學의 巨星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의 이름을 요약한 것이지만 이것은 당시의 大學人들이 그들의 哲學思想을 얼마만큼 흠모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특히 舊制高等學校를 상징하는 노래로 더욱 유명하다.

오늘날 大學의 役割은 學問研究와 教育이라는 전통적인 기능 이외에 專門職業教育과 一般教養을 새로운 기능으로 부과하고 있다. 專門의 職業教育이 大學의 實用性을, 眞理의 탐구가 研究的 性格을 대표한다면 教養이 대표하는 것은 大學의 思想性이다. 「데칸쇼」는 思想性으로서의 大學의 教養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日本의 大學社會에서 一般教養은 이미 大戦前 近代教育이 시작될 때부터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다.

大戦後 大學改革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一般教養課程을 必須教科로 편성하게 된 것은 日本의 高等教育史上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그러나 戰後 日本의 大學社會에는 新制大學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논란과 함께 教養教育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大戦前에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戰前의 教養教

育이 훨씬 충실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教養課程의 폐지론을 제창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日本의 大學社會에는 教養教育의 意義와 重要性을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教養課程의 편성 방식과 조직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教養教育의 課程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日本의 教養教育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大戦前의 高等教育機關의 教養教育을 舊制高等學校와 大學豫科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다음으로 新制度下의 一般教養教育의 편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大學基準」 「短期大學設置基準」, 「大學設置基準」을 중심으로 教養教育의 전개과정과 당면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II.

大戦前의 高等教育機關은 高等學校·大學豫科와 舊制의 大學·專門學校의 복선적인 教育體系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는 大學으로 진학하는 正統코스이고, 다른 하나는 專門教育을 실시하는 終局學校이거나 원칙적으로 大學進學을 하지 못하는 방계코스이다. 즉 前者인 高等學校·大學豫科가 大學進學의 정규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高等學校는 수업연한 3年, 入學資格은

中學校 四年수로 이상이며 그 種類로는 官立·公立·私立이 있어 그 어느 것이든 帝國大學進學코—스로 그들에게 大學教育의 기초가 되는 高等普通教育을 目標로 하고 있었다. 大學豫科는 官立大學으로 연결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私立大學附設로 되어 있고 入學資格은 中學校 5年졸업이상, 修業年限은 2年이었다.

大學은 學部로 구분되어 있고 高等教育의 최고기관으로 修業年限은 3年이었다. 後者인 中等교육기관의 제 2계통인 專門學校는 3~4年の 수업연한으로 각종 專門教育을 중심으로 하며, 卒業生은 곧 實社會로 진출하여 職業에 종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官·公·私立專門學校이외에 私立大學附設의 專門部와 專門學校가 있어 고도의 專門教育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舊制의 大學과 專門學校는 專門職業教育과 完成教育을 目標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는 大學進學을 위한 基礎準備教育과 一般敎養教育은 高等學校와 大學豫科가 중심으로 하는 教育內容이었다.

高等學校는 文科와 理科로 편성되어 있었고 1919年の 高等學校規程에 의하면 그의 教育課程은 修身科를 비롯하여

言語教育學科：國語，漢文，第一·第二外國語

人文科學的敎科：哲學，心理學，論理學

社會科學的敎科：歷史，地理，經濟，法制

自然科學的敎科：數學，物理學，化學，動物學，礦物學，地質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學科目中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外國語教育으로서 文科와 理科가 다같이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을 第一·第二外國語에 배정하고 있었다. 語學教育의 敎材는 難解의 古典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獨語科에는 피에테, 하이네등을, 英語科에는 에머슨, 하이다등과 같이 모두가 19세기의 思想과 文學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語學教育이 실용적인 語學學習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高等學校의 語學은 「데칸쇼」와 같이 古典을 읽고 學問과 思想을 넓히기 위한 敎養教育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大學豫科에 있어서도 學科의 편제는 文科와 理科로 되어 있었고, 教育課程은 高等學校와 마찬가지로 專門教育에 目標을 두지 않고 語學과 一般敎養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舊制의 大學教育에 있어서도 고도로 專門化된 것을 教育內容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專門教育의 기초와 人間教育을 위한 一般教育을 경시하지는 않았다.

다음에 언급하겠으나 이상과 같은 大戰前의 敎養教育의 경향은 戰後 日本의 一般教育의 전개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專門教育과 一般教育의 관계에 관한 문제, 高等教育關係者들 사이에 있어서의 一般教育에 대한 見解差등과 같은 日本 특유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와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부터 기인된 것이다.

Ⅲ.

第二次大戰直後 日本은 美占領軍의 지도하에 戰前의 帝國主義的 教育體制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教育改革에 착수하였다. 教育改革의 基本은 1947년에 제정 공포된 教育基本法과 學校教育法으로 표면화되었으나 大學에 관해서는 學校教育法에 규정된 大學의 目的·構成·修業年限·入學資格·職員·敎授會·設置基準·大學院등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개혁조치에 따라서 大學豫科는 폐지되고 舊制高等學校·專門學校·師範學校가 大學 또는 大學의 學部로 승격되었으며, 舊制大學들은 개편확장되기도 하고 많은 새로운 大學들이 新設되었다.

新制大學은 1949년부터 발족시킨다는 文部省의 방침에 따라서 이때부터 전국각지에 國·公·私立大學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大戰 직후에 官·公·私立大學의 총수가 48校, 學生數는 불과 1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도 文部省 統計에 의하면 大學數 443校, 學生數 184만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大學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新制大學의 一般敎養課程의 편성기준은 앞서도 일차 지적한 바와 같이 1947년에 大學基準協會가 제정한 「大學基準」과 1949년 大學設置審

議會決定의 「短期大學設置基準」, 그리고 1959년에 文部省令으로 발표된 「大學設置基準」등의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먼저 大學基準協會의 大學基準에 규정된 一般教育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同基準에 명시된 一般教育의 教科目群과 科目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人文科學關係：哲學(倫理學포함), 心理學, 教育學, 歷史學, 人文地理學, 文學, 外國語

社會科學關係：法學, 政治學, 經濟學, 社會學, 統計學, 家政學

自然科學關係：數學, 物理學, 化學, 地理, 生理學, 人類學, 天文學

各大學은 一般敎養科目中 各系列別로 3科目이상, 전체로서 文科系의 大學 또는 學部는 15科目, 理科系는 12科目의 수업을 준비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學生들의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文科系는 一般敎養科目中 外國語를 부과하여 3系列에 걸쳐서 2科目이상, 計 10科目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40학점이상 취득하도록 하며, 理科系는 外國語 1科目을 포함하여 3系列에서 각각 2科目이상, 計 9科目이상을 이수하여 36학점이상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후 수차에 걸쳐서 改訂되기는 하였으나 日本의 高等教育史上 획기적인 意義를 갖는 一般教育에 관한 최초의 編成基準은 이렇게 하여 성립되었다. 1950년대初까지는 불합리한 條項들을 모두 改訂하여 大學基準은 일단 정비되었다. 科目群의 공식명칭을 「一般敎養科目」을 「一般敎育科目」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文·理科系各學部別로 開設하는 科目數가 결정되어 있던 것을 文·理科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으로 3系列에서 5科目이상, 計 15科目이상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一般敎養科目의 授業은 원칙적으로 각 科目當 4學點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學生들의 學點이수에 있어서는 1947年 基準에는 文科系는 一般敎養科目中 外國語를 부과하여 3系列에서 각각 2科目이상 計 10科目이상을 이수하며 40학점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理科系는 外國語포함 3系列에서 각각 2科目이상 計 9科目이상, 36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1950年改訂時에 文·理科 共通으로 各系列 3科

目이상 이수할 것을 필수로 하고, 1科目當 4學點을 원칙으로 하며, 各系列 12학점이상, 計 36학점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一般敎養科目에 포함되어 있던 外國語를 분리하고, 大學은 틀이상의 外國語에 각각 8學點이상의 科目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大學基準協會가 一般教育을 各大學이 敎育課程에 편성하도록 각종 보급·제공활동을 전개하여 一般教育의 진흥에 기여한 업적은 매우 컸다. 특히 同協會는 協會活動에 참가하고자 하는 大學들의 資格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一般教育의 실시상황을 검토했다는 것은 一般敎育科目의 設定과 新制度下의 大學科目으로 定着시키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四年制大學과 더불어 日本의 大學體系에서 2大支柱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短期大學은 大戰直後 舊制高等教育機關의 개편과정에서 출현한 新型의 大學이다. 大戰後 四年制大學으로 승격을 희망하는 舊制高等教育機關중에서 設置基準未達의 學校를 2~3年制 初級大學으로 발족시킨 것이 현재의 短期大學이다. 1950年 발족당시의 短大數는 149校, 學生數 약 1만 5천명이던 것이 지금은 약 500校에 35만명의 學生이 재학하고 있다.

短期大學의 一般教育에 관한 것은 前記한 바 있는 短期大學設置基準에 규정되어 있다. 同基準에는 “短期大學은 高等學校의 기초위에…實際的인 專門職業에 중점을 두고 大學敎育을 실시하여 훌륭한 社會人을 육성한다.” “短期大學은 一般敎養과 밀접한 關係하에 職業에 필수되는 專門敎育을 교수하는 完成敎育機關이다”라고 그 취지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一般敎養과 밀접한 關係하의 專門敎育」이라는 定義는 短期大學의 敎育이 高等學校敎育의 補習的인 職業專門敎育이 아니고, 그렇다고 四年制大學의 進단계로서의 敎養敎育도 아니며, 그 本質에 있어서 四年制大學의 敎育과 차이가 없는 專門敎育과 一般敎育의 結合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短期大學의 設置基準에 규정되어 있는 一般敎養科目만을 各系列別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人文關係科目：哲學, 倫理學, 宗教, 歷史,

文學, 音樂, 美術, 演劇, 外國語

社會科學關係科目: 社會學, 法學, 政治學, 經濟學, 教育, 心理學, 人文地理, 文化人類學

自然科學關係科目: 數學, 統計學, 物理學, 地學, 生活科學, 生物學, 實驗心理學

人文의 音樂·美術·演劇과 自然科學의 生活科學등은 「大學基準」에는 例示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고 大學基準과 같이 前記教科이외의 科目을 一般教養科目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短大의 졸업요구학점은 62학점이며 그 가운데 一般教養은 3系列에 각각 4학점 이상, 제 20학점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一般教養學點과 卒業要求學點의 비율은 1대 3으로 四年制大學이 40대 124인데 반하여 短大는 20대 62이며, 절대수만을 四年制의 절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短大의 理念을 完成教育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短大의 設置基準은 그후 數次 改訂되었는데 一般教育關係事項만을 정리해 보면 첫째, 外國語를 人文系에서 독립시켜 大學에서는 4학점 이상 준비하도록 하고, 둘째, 專門科目요구학점 24학점은 그대로 두고 一般教養科目을 各系列 4학점 이상, 제 12학점 이상으로 개정하여 8학점을 줄였다. 따라서 卒業要求學點인 60학점중 一般教育 12학점, 專門教育 24학점 計 36학점을 공제하고 24학점의 융통성을 둔것은 科目開設 및 학점취득방법을 各短期大學에 맡겨 특색을 살릴 수 있게 함이었다. 이와 같은 改訂方法은 大學의 主體의 條件에 따라서 그 形態·發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短期大學을 高等教育制度全體 가운데 어떻게 영속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法令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5年 종합적인 高等教育의 확충계획에 따라서 文部省令으로 法令化하였다. 따라서 1976年 이후부터는 設置基準이 이 法令에 따르도록 되었으며 그의 性格은 內容의 多樣化의 可能性과 制度上의 柔軟性·流動性を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般教育科目과 專門教育科目의 학점을 최저한으로 줄이고 여유학점을 두어 各 大學의 方針에 따라서 어느 方向으로든지 그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四年制大學의 設置認可에 관한 것은 「大學基準」에 의거하였으나 1956年 文部省이 大學設置基準」을 省令으로 公布한 이후부터 모든 關係業務는 이 法令에 준하도록 하였다. 이 文部省令인 「大學設置基準」은 지금까지의 一般教育의 編成原理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1956年 公布當時의 同基準에 규정된 一般教育科目의 內容은 ① 人文科學系: 哲學, 倫理學, 歷史, 文學, 音樂, 美術, ② 社會科學系: 法學, 社會學, 政治學, 經濟學, ③ 自然科學系: 數學, 物理學, 化學生物學 등으로 설정하였으나 「大學基準」과 다른 점은 各系列에서 3科目이상, 全體에서 12科目이상의 授業科目을 開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게 되겠으나 各계의 반발을 받게된 부분이었다. 授業科目을 內容別로 一般教育科目·外國語科目·保健體育科目·專門教育科目의 4種으로 하고 있는 것은 「大學基準」과 같으나 同設置基準에는 「基礎教育科目」을 새로운 教科로 신설한 것이 큰 변화였다. 大學에 基礎教科를 도입하게된 직접적인 배경은 理工系의 要求때문이었으나 보다 큰 원인은 技術革新이 예상되는 日本產業界의 보다 강력한 요청때문이었다. 그 도입방법은 一般教育科目 36학점중에서 專門技能教育을 주로하는 學部에서는 그와 관련된 科目 8학점을 基礎教育科目으로 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치는 一般教育編成原理가 專門教育重視의 경향으로 경주되고 있어 후에 關係分野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基準이 個別大學의 開設科目 등을 너무 細分하여 規制하고 있어 教育의 硬直性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文部省은 1971년에 ① 各系列에서 3科目이상 전체에서 12科目을 개설하도록 規정한 것을 “3分野에 걸쳐서 開設하면 된다”라고 개정하고, 開設科目은 원칙적으로 單一科目으로 되어 있던 것을 둘 이상의 學問分野의 內容을 종합한 統合科目의 개설을 인정하였으며, ② 一般教育科目은 원칙적

으로 1科目 4學點으로 되어 있는 것을 各大學의 自由에 맡겼으며, ③ 卒業要件으로서의 一般教育科目은 系列別로 3科目, 12學點, 計 36학점으로 규정된 것을 “各分野에 걸쳐서 36學點”으로 완화하였으며, 基礎教育科目 8學點을 12學點으로 하고 또 外國語·基礎教育·專門教育의 어느 科目으로든지 대치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그 밖에 他大學學點을 30學點까지 인정하여 大學의 自由化·國際化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이채로운 결정이었다.

IV.

이상에서 日本의 大學에 있어서 戰前·戰後를 통하여 一般教養教育이 어떠한 經路로 전개되어 왔고, 특히 四年制大學과 短期大學의 一般教育은 어떠한 編成基準과 法令을 근거로 開設되어 왔는지를 實證的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검토하였다.

다음은 一般教育이 日本의 大學教育에 정착되기 어려웠던 要因을 고찰하고 當面課題를 간략하게 지적해 두고자 한다.

戰後 一般教育은 출발점부터 大學內部에 용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舊制高等教育時代의 教養教育과의 對比에서 발생된 바가 컸다. 戰後 舊制高等教育機關의 教授陣은 그대로 新制大學教授로 자리를 계승하였으나 舊制大學·專門學校교수진과 高等學校·大學豫科교수진은 一般教育에 대한 觀點을 각각 달리하고 있었다. 舊制大學·專門學校교수진은 大學이 新制大學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의 3年으로부터 4年으로 修業年限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專門教育에 활용할 수 있는 時間은 一般教育 2年을 공제하면 舊制大學보다도 훨씬 단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舊制高等學校와 大學豫科의 關係者들은 一般教養教育은 생소한 것도 아니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러나 一般教育에 대한 大學內外에서 주는 阻害要因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一般教育이 外部로부터 받고 있는 직접적인 阻害要因은 劃一的인 管理運營방식과 재정적인 條件을 들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大學設置基準」은 상당수준으로 柔軟性있게 改正되기는 하였으나 一般教育의 管理運營에 대한 行政當局의 劃一성과 制度的인 制約의 可能性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一般教育의 研究와 教育을 위한 條件整備에 소요되는 財政問題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課題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一般教育이 戰後 출근 압박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阻害要因은 產業界의 專門教育을 강화하라는 要請배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基礎教科의 도입으로 인한 一般教育의 위축현상은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產業界는 大學을 完成된 專門的인 訓練의 場으로 보고, 大學을 知的勞動力의 安定的인 供給機構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러면서도 一般教養教育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課題는 專門教育과의 調和와 相補的인 關係를 유지하는 일이다. 특히 現代文化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科學技術을 어떻게 大學教育의 內容으로 定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一般教育은 오늘날 知的世界가 당면하고 있는 人文的인 教養과 科學的인 教養의 分極化와 對立을 극복해야 할 課題를 동시에 지고 있는 것이다.

네째, 一般教育은 國民이 처해있는 歷史的·國際的인 狀況을 어떻게 그 內容으로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美國大學의 一般教養의 理念·方法을 그대로 도입했던 日本의 立場에서 이제 日本國民의 自主的인 教養을 大學教育을 통하여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하는데 省察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